

맹독성 불산가스 2차 피해 확산

농작물 말라죽고 가축 이상 증세 ... 자동차 · 건물외벽 부식까지

경북 구미의 휴브글로벌 화학공장에서 유출된 가스에 따른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구미시는 9월27일 구미4국가산업단지의 화학기업 휴브글로벌에서 불산(불화수소산: Hydrofluoric Acid)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10월1일까지 접수한 농작물 피해면적이 91.2ha에 달한다고 밝혔다.

9월28일 접수한 농작물 피해도 27.5ha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 피해는 사고 발생지와 가까운 산동면 봉산리 지역에 집중돼 포도, 사과, 배 등 과수가 31.2ha, 벼가 60ha로 집계됐다.

과수와 벼는 고엽제나 농약을 뿌린 것처럼 모두 잎이 말라서 죽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 봉산리 지역의 가축 농가 29곳이 소 1313마리와 말 1마리가 이상 증세를 보인다고 구미시에 신고했다.

해당지역 가축들은 기침하고 콧물을 흘리며 사료 섭취를 거부하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사고현장 주변에 세워둔 자동차 25대가 부식 현상을 보였으며, 건물 외벽이 부식되는 등 기타 피해도 2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불산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세포조직을 쉽게 통과한다”며 “불산에 노출된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원인에 대해 탱크로리 위에 있는 송출 밸브가 열려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04>